

## 관계 구축의 기본

---

여론주도층은 지위나 명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믿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선거나 지명으로 선출된 정부 관리, 학술 단체의 지도자, 저명한 사업가, 종교 지도자 및 언론 종사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론주도층은 교회가 성전이나 예배당을 짓고, 각 나라에서 개종자를 내고, 족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거나 인도주의적 원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대해 가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는 다른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언론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론주도층이 교회와 교리와 관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교회가 주도하는 훌륭한 일들을 보고, 교회 회원들과 친분을 맺게 될 때 그들은 적절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더욱 기꺼이 교회를 지지하고 합법화하며 교회의 활동을 인가하고 필요 시엔 교회를 응호하기도 할 것입니다.

### 어떤 관계가 좀 더 중요한 관계로 간주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교회 지도자와 여론주도층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모두 소중하며 교회의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론주도층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또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의 사업을 돋거나 방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현재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해당 지역에서 교회가 현재 착수하고 있는 특정한 일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돋는 것이 그 지역의 공보 평의회가 하는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 관계 구축의 원리

개인적이든 전문적이든 상관 없이 거의 모든 관계는 성공의 기본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개인적인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론주도층과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원리에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보 평의회는 개인적인 관계와 여론 주도층과의 전문적이고 현세적인 사무적 관계 사이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원리들 중 많은 부분이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보 평의회와 신권 지도자들은 이것들을 특정한 여론주도층과의 관계 형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는 사람과 맺는 것이지 기관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기관, 학술 단체, 또는 언론 매체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교회를 대표하는 개인이 이들 조직을 대표하는 개인과 사무적 관계를 구축하려 하는 것입니다.
-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된 관심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를 찾으면 대화와 이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의 필요사항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한 쪽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도움을 구하기만 하고 다른 쪽에게 답례로 어떤 유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 진정한 관계는 진실되고, 자연스러우며, 자발적입니다. 그것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끌릴 때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와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를 존경심으로 대하고 관심이 가고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단지 알고 지내던 것에서 진정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관계는 곧바로 소원해지게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사무적 관계는 활기 있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 사무적인 관계 vs. 개인적인 관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생산적인 관계는 꼭 그 성격이 개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여론주도층은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개인적인 관계를 진척시키려고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여 맺은 어떤 사무적 관계가 결국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들은 결국 개인적인 것이 될 것이며 교회뿐 아니라 관여하고 있는 개인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는 공보 평의회의 회원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며, 업무적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론주도층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전문적이며 현세적이다.**

일반적으로 여론주도층과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보다는 전문적이거나 현세적인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이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친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 기업, 학계 지도자들은 전문적인 서신 왕래, 공식적인 초대장, 미리 일정이 잡혀 있는 방문에 익숙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론주도층과 이미 아는 사이인 사람이 공식적으로 소개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여론주도층이 직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그들이 기대하는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접근한다면, 특히 처음 만날 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전문적인 또는 문화적인 의전 절차를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는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만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공보 평의회는 효과적인 공보활동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여론주도층과의 관계는 그들의 현세적인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여론주도층은 개인적으로는 영적일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아닌 한 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정부나 학계, 기업, 언론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현세적인 지위에서 나옵니다. 공보 평의회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교회의 교리나 관행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그 영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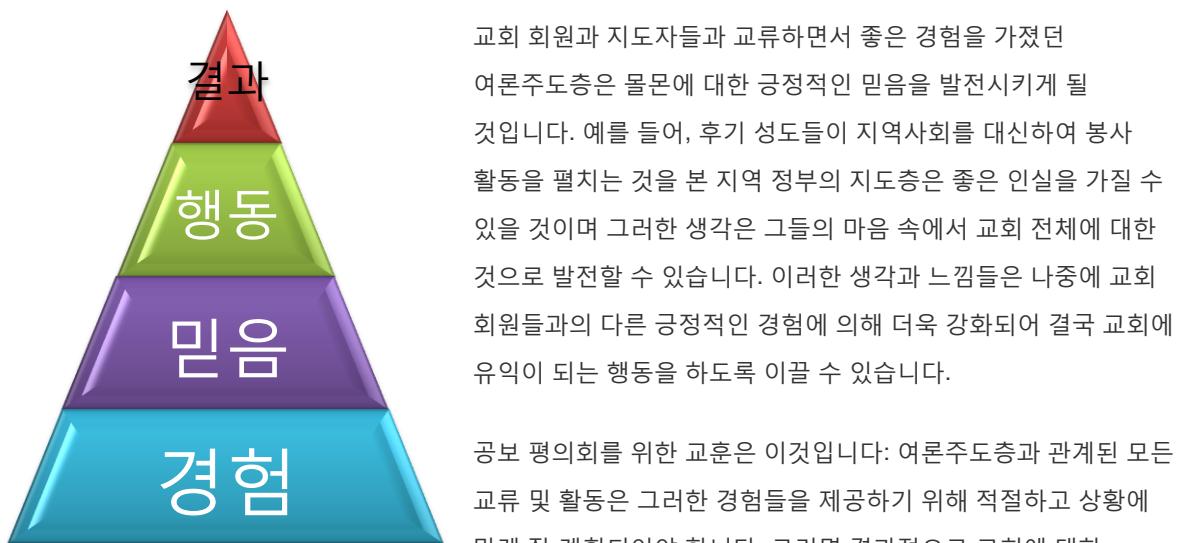
여론주도층은 일반적으로 현세적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교회의 활동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난 구조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 교회 회원들이 하는 봉사, 그리고 교회 회원들의 현세적인 성취에 대한 설명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일단 교회의 활동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여론주도층은 복음 원리에 대한 적절한 설명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대화는 그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 여론주도층에게 다가가기

훌륭한 계획과 준비가 성공적인 공보 평의회의 특징이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직 구축된 관계가 발휘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익한 결과를 통해서만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여론주도층이 교회 회원과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겪는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 긍정적인 경험 = 긍정적인 믿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마음 속 깊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기초하여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대부분 경험에서 옵니다.



### 여론주도층과의 교류가 적절하고 상황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절하다는 말은 그 여론주도층과 그들의 시간과 책임,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을 표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으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그 여론주도층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론주도층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감”(아래를 보시오)으로써 공보 평의회는 여론주도층에게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들 각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구축되기 전에는 여론지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노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시간이 들 것입니다.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교류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여론주도층마다 다를 테지만, 다음의 일반적인 지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남, 교류, 또는 다른 접촉이 있기 전에:

- 철저히 준비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십시오.
- 그 여론주도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현재 흐름을 잘 파악하십시오.(예를 들어 그들이 최근에 발표한 글을 찾아보거나 그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에 대한 최근 뉴스를 읽습니다.)
- 대화의 성격을 전문적으로 유지하십시오.(간결하고 요점을 짚는 대화를 하고, 너무 개인적이지 않게 하십시오.)
- 그 여론 주도층과 주고 받은 서신을 항상 철저히 검토하고 모아두십시오.
- 교회가 그 여론주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십시오.
- 질문이나 관심사를 예상하고 적절한 응답을 준비하십시오.
- 여론주도층의 흥미와 관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만남, 교류, 또는 다른 접촉을 하는 동안:

- 여론주도층의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되 적절히 담대하십시오.
- “환담”을 나눌 때 여론 주도층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 여론 주도층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보이십시오.
- 여론 주도층의 업적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 잘 알고 있는 주제만 다루고 반대 의견이 있는 주제는 피합니다.
-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 부탁을 하는 대신 도움을 제공하는 중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여론 주도층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사치스럽지 않은 적절한 선물을 활용합니다.

만남, 교류, 또는 다른 접촉을 하는 동안:

- 감사의 표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되 너무 자주해서 성가시지 않도록 합니다.
- 특별한 일정이나 업적이 있다면 관심을 보이십시오.
- 여론 주도층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물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류 기회를 찾으십시오.

## 여론 주도층의 세계에 들어가기

여론 주도층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론 주도층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 믿음, 견해, 태도를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공보 평의회와 신권 지도자들은 신문,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경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어떻게 여론 주도층과 적절하고 타당하게 교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면, 다음 사항을 염두 하십시오.

- 여론 지도층의 약력과 배경 정보, 그들이 속해있는 기관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여론 주도층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출판한 것만 보지 말고, 여론 주도층 본인들의 의견을 출판한 웹 사이트, 블로그, 여론 주도층이 대표로 있는 기관에서 만든 웹 사이트, 개인 미니 홈피와 같은 자료도 찾아 보십시오.
- 여론 주도층에 대해 언급한 것과 여론 주도층이 언급한 것 모두를 찾아 보십시오. 특별히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담긴 대중 연설이나 논평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론 주도층이 공보 평의회의 목적이나 지역적 문제들과 관련된 것을 언급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 여론 주도층이 최근 이룬 업적과 명예롭거나 표창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특별히 공보 평의회의 목적이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 여론 주도층이 언급한 통계 수치나 기사 중 공보 평의회의 목적이나 문제에 관련된 것을 찾아 봅니다.
-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여론 주도층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매일 [www.newsroom.lds.org](http://www.newsroom.lds.org) 를 읽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십시오.
- 대중 매체 관련 여론 주도층의 기사나 보고를 읽거나 청취하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해 그들의 편집 성향이나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냅니다.